

# 갑진년 운곡서원雲谷書院 춘향제 봉행

갑진년 운곡서원 춘향제가 4월 13일 오전에 권오신 운곡서원 운영위원장, 권주연 전 파총회장협의회 회장, 권철환 안동총친회장, 이관희·이종기·최건·손순호·김진선 등 지역유림,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혁무 전 운영위원장, 권한욱 총무, 권유주, 권태환(양주), 권대성(안동), 권민장 작가와 부인 백선현, 권용하, 권혁범, 권용호, 권혁근, 권혁복, 권구훈, 권상택, 권상윤, 권철근, 권혁달 등 지역유림과 후손 100여명의 참여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봉행되었다.

향례는 8시에 진설하고, 9시에 시도, 9시 30분에 배반, 10시에 파록 및 사축, 11시에 향례와 음복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갑진년 봄 향례 파록에는 초헌관 권주연(權宙衍) 전 파총회장협의회 회장, 아헌관 이관희(李寬熙), 종헌관 이종기(李鍾基), 대축 최건(崔健), 찬자 손순호(孫淳鎬), 알자 권용하, 사존(司尊) 김진선(金鎭善) 등으로 향례 집사를 분정했다.

운곡서원 향례의 특이한 점은 헌관 이하 제집사가 경덕사 앞뜰에 배열해 있고 초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을 가는 세필로 그대로 옮겨 쓰는 사축례(寫祝禮)를 행한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행하는 종묘대제나 시조 태사공 향사를 비롯하여 그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이다. 운곡서원의 향례만이 갖는 절차가 아닌가 한다.

공자성적도(孔子聖蹟圖)는 만세사표(萬世師表)로서 공자(孔子)의 일생동안의 행적 중 중요한 사건과 일화를 그림과 함께 설명한 것으로 성적도(聖蹟圖)라고 부른다. 성적도는 “논어論語”, “사기史記”, “공자세가孔子世家”, “공자가어孔子家語” 등을 참고로 하여 그림으로 그려진 공자전(孔子傳)이다. 여기에 태묘문례도(太廟問禮圖)가 있는데, 공자가 처음 벼슬할 때 노나라 주공(周公)의 사당에 들어갔을 때 제사지내는 절차마다 매사에 대해 물었다. 사람들은 공자는 예를 안다고 하더니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는다고 홍보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예(禮)이다”라고 말했다. 예기(禮記)에서 곡례(曲禮) 삼천이라고 했듯이 공자는 아마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문중마다 예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운곡서원의 사축례야말로 공자처럼 매사에 예를 묻지 않는다면 실수하기 딱 좋은 경우가 아닌가 한다.

운곡서원은 후손뿐만 아니라 경주 지역 인사들이 앞다투어 추모하고 분받으려는 마음을 이어오다 1784년(정조8년) 경주에 사는 후손이 시조 태사공은 신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역사적인 공로를 세운 분이므로 마땅히 신라의 도읍지였던 경주에 사당을 세워 추모해야 한다고 발의하여 인근 영해의 후손 종중과 협의하고 안동의 대종중에 통문을 보내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추원사(追遠祠)를 창건하였다. 운곡서원은 한국의 수많은 성씨 중에서 시조를 제향하고 있는 유일한 서원으로 알려져 있다.

운곡서원의 사당 경덕사(景德祠)에는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을 주벽(主壁)으로, 죽림공(竹林公, 권산해權山海, 좌윤공파, 19세, 1403-1456)과 귀봉공(龜峰公, 권덕린權德麟, 좌윤공파 23세, 1529-1573)



축문을 붓으로 옮겨 쓰는 사축례(寫祝禮)는 운곡서원 향례 절차의 하나이다.

이 배향되어 있다.

죽림공은 단종의 이모부로 부정공과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권전(權專)의 사위이다. 화산부원군의 셋째 딸이 단종의 여마 현덕왕후(顯德王后)이니 문종의 손윗동서이기도 하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1453)을 일으켜 단종을 몰아내자 고향 예천 대죽리로 낙향하여 두문불출하였다. 이어 사육신 등의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하자 “하늘이 돕지 않는다. 살아서 사직을 바로잡지 못할 바에야 내 홀로 살아서 무엇하리오. 죽어서 선왕께 보은이나 하겠다”하고 문종이 내린 조복(朝服)으로 갈아입고 누대에 올라 북향 사배한 끝에 행차에서 뛰어내려 절명(絶命)했다. 그때 나이 54세였다.

이후 그의 후손인 갈산공(葛山公, 權宗洛)이 1789년(정조13년)에 절의로 목숨을 바친 충신들이 모두 복권되었으나 자신의 선조인 죽림공은 신원되지 않아 한양에 올라가서 임금에게 복권되기를 상소하고 또 정조의 어가행렬을 가로 막고 격정을 벌이며 눈물로 호소한 끝에 드디어 신원되고 작위가 회복되어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갈산공은 금성단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압각수 가지를 꺾어다 운곡서원에 심었다 한다. 그래서 운곡서원의 은행나무는 그 역사적 증거이자 순조정신이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시조 태사공 신도비

계유정난은 한국 역사에서 정실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계유정난이후 모든 왕은 세조의 후손이고, 정치문화적으로는 맹자가 말했듯이 성지정자(聖之清者)인 백이숙제와 같은 절의와 도덕성이 한국정실문화의 축이 되도록 했던 사건이 계유정난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 죽림공은 조종부인 좌의정 문경공(文景公, 권진權鎭)으로부터 사기(史記)를 배우면서 백이전에 이르자 “이 사람이 있는 연후에 가히 만고의 강상(綱常)이 부지되었구나”라고 탄식했듯이, 한국정실문화의 중심축에 죽림공의 절의정신도 하나의 주춧돌로 자리하고 있다.

후손들은 죽림공 절명 이후 100년간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세조의 명으로 인해 100년 동안 연금 상태로 묶여 있다가 1553년(명종8년) 귀봉공이 대과에 급제하여 비로소 출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시조 태사공과 죽림공과 귀봉공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운곡서원은 경주와 고향인 시조 태사공의 병기달관(炳幾達觀)의 공훈과 도타운 덕을 기리고 죽림공의 절의정신과 귀봉공의 대과급제의 맥을 면면히 이어가는 좌윤공파의 상징이자 안동권문의 또 하나의 정신적 고향이라 할 수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 양촌 문충공 2024 갑진년 한식 절사節祀

예하 결성공 호군공 양대 묘정비墓庭碑도 세워

충북 음성군 생극면 능안로 377-15 방축리 능안의 충북도문화재 ‘양촌권근삼대묘소’에서 시조후 16세 찬성사 문충文衝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선생[휘 근처, 1352-1409] 이하 제위의 갑진년 한식 절사節祀가 2024년 4월 5일 봉행되었다. 예사 ‘차례茶禮’라 하여 ‘설, 추석, 한식, 구일차례’ 등으로 부르는 이 절사는, 사당 즉, 가묘가 있는 집에서는 거기 모신 신주를 정당으로 출주出主하여 행사하고, 4대 친진親親으로 제천이 된 선대는 묘제 외에 기신제忌辰祭나 여러 절사를 지내지 아니하며, 나라에서 공신에게 영구히 제사하게 하는 불천위不遷位의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내려야 기신제와 절사를 그 별묘에서 지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별묘를 또 부조묘不祧廟라 하며 양촌 문충공 묘역에는 문충공 부조묘와 그 차남 문경文景公[17세 휘 제평, 음성군 소이면 갑산리 소재] 부조묘, 4남 안숙공安肅公[17세 휘 준걸] 부조묘, 문경공의 차남 익평공翼平公[18세 휘 람攀, 전남 담양군 대전면 효례촌 소재] 부조묘, 문경공의 3남 안양공安襄公[18세 휘 반攀] 부조묘까지 무릇 5위의 부조묘가 한 곳에 소재하여 그러한 면에서 우리 동방은 물론, 사실상 세계 어디에도 다시없는 명소가 되고 있다.

차례는 무죽단헌無祝單獻, 즉 축문을 읽음이 없이 한 번만 술잔을 올리는 작헌을 하며 전물奠物, 즉 제수도 갖은 제물을 차려 올리는 은전殷奠으로 하지 않고 주과포혜酒果脯醢의 소전에 시절의 식물을 드리는 천신薦新을 더하는 정도로 한다. 차례의 일반 의례를 체계적으로 가장 잘 정의해 놓은 것으로 정평이 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차례’ 항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절사節祀라고 한다. ‘가례’에 나타나는 제례 중에서 참례參禮와 천신례薦新禮가 관행의 차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서 차례를 가장 많이 지내는 명절은 설과 추석이다. 이 밖에도 지역이나 가문에 따라서 사당이나 벽감壁龕이 있는 집에서는 대보름날 한식 단오 중앙절 동지 등에 차례를 올리는 법도 한다. 차례에 대한 호칭도 지방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채사菜祀·차사茶祀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례에 모시는 조상은 불천위不遷位[나라에 공훈이 많아 사당에 모셔 영원히 제사를 받도록 허락한 분의 위패]와 함께 4대 조상에 한한다. 차례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관혼상제의 규범이었던 주자朱子의 ‘가례’에 없다. 그러나 차례의 형식과 같은 것으로 참례와 천신례가 ‘가례’에 나타나고 있다. 참례와 천신례는 본래 제례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구준준灌의 ‘가례의절사禮儀節’에는 통례通禮[집에 있을 때 일상으로 행하는 의례]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례는 정조正朝·동지·초하루·보름에 사당에 참배하는 것을 말하며, 천신례는 청명·한식·단오·중원中元[7월 보름, 즉 백중]·중앙과 같은 속절에 사당에서 그 때의 시식時食을 올리며 참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이李珥는 천신례를 대보름·삼짇날·단오·유두·칠석·8월보름·중앙·선달그믐에 올린다고 하고 있다. 실제 정조 송시열宋時烈 종가의 경우, 차례를 삭망차례·사절차례·천신차례로 구분하여 지내고 있다. <중략> 차례는 차를 올리는 절차를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이다. ‘가례’에 나타나는 제례 중에서 사당에서 올리는 참례와 천신례는 고사례告辭禮와 더불어 차를 올리는 절차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차례라는 명칭도 차를 올린다는 뜻을 내포한 중국 전래의 제례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관행의 차례에서는 차를 올리는 절차가 없다. 이제李穡가 살았던 17세기 후반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사례편람四禮便覽’에서 ‘차는 본래 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례’의 절차에 나와 있는 설다設茶·점다點茶와 같은 글귀는 모두 빼어버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차례에 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가례’의 참례와 천신례는 차례와 그 절차가 유사하다. 다른 제례의 절차에서 나타나는 세 번의 헌작獻酌과는 달리 참례와 천신례, 그리고 차례에서는 단지 한 번의 헌작을 한다. ‘가례’에 나타나는 참례와 천신례의 절차는 진설陳設·출주出主[신주를 내어모심]·강신降神·참신參神·단헌單獻·점다·사신辭神·납주納主로 요약된다. 차례의 절차는 지방과 가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례’에서 보이는 절차는 같다.

이 밖에도 참례와 천신례는 모두 사당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례는 일반적으로 정침의 대청에서 지내고 있고, 참례와 천신례는 주부와 딸들 등 여자들이 참여하여 여자 조



양촌 문충공 묘소에서 갑진년 한식 절사가 봉행되고 있다.



결성공 묘전에서 헌관이 북북한 가운데 입석 고유문이 봉독되고 있다.



호군공 묘전에서 수비 고유문이 봉독되고 있다.

상의 신주를 내어모시거나 들여보내고 출주와 납주, 점다를 올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나 차례에서는 여성의 제사 참석이 보이지 않는다. 또 ‘가례’의 참례에서는 시식이나 별찬(別饌)이 없이 단지 천신례에서만 시식을 올리도록 되어 있으나, 차례에서는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하나씩의 별찬이나 시식을 올리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예사인 ‘사례편람’의 참례에는 이이의 말을 인용하여 올리는 별찬과 시식의 종류를 적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동지의 두죽豆粥[밭죽], 정조의 탕병湯餅[떡국], 그리고 약반藥飯[약밥]·애병艾餅[숙떡]·각사角黍[졸풀잎으로 찹쌀을 싸서 송편같이 만든 떡]·증병蒸餅[시루떡]·수단水飩[경단]·상화霜花[가장떡]·조울고康菓蒸[대추와 밤을 섞어 찐 백설기]·나복고蘿蔔羔[무시루떡]·전약煎藥·염육鹽肉[사슴·돼지·꿩·기러기 등 사냥한 고기] 등이 있다. <후략>

이번 양촌 문충공 한식 절사는 그 목적이 상계에서 크게 특화되어 집사분방부터 ‘삼대묘향사후祀분방’이라 특칭하고 3헌관과 대축 등을 열기하며, 행사 규모가 사당차례의 의례를 열듯이 벗어나는 묘제의墓祭儀도 봉행되었다. 각위의 초헌관은 최존위 문충공위에 동종회장 권오형權五協, 문경공위에 공중손 권기준權奇峻, 안숙공위에 전진간공회장 권병문權炳旻, 익평공위에 안숙공회장 권영길權寧傑씨가 행공하였다.

충시 음복 후에는 삼대묘역 주룡의 좌청룡 율목 울산강蔚山崗 18세 마전공麻田公[휘 염순 1427-1479] 묘소 계하의 결성공結城公[휘 오형 1455-1505]과 그 차남 호군공護軍公[휘 예철 가신대부 용양위부호군]의 묘전에 세운 묘정비墓庭碑의 제막 고유제를 올렸다. 결성공 묘소는 원래 이곳의 외백호족에 속좌로 있었는데 2014년 4월 이곳으로 이장하였고 초창 이래 500여년 세월 비갈이 없던 것을 이번에 흉공과 호주에 거주하는 16대손 경영학 석사 국제경영인 권원식權元植씨가 자담헌성으로 입석하였다. 호군공 묘소는 현재의 울산강 건너안쪽에 오래도록 퇴비壙祀되어 실전의 위태로움도 없지 않던 터에 2014년 4월 이곳으로 이장하였고, 또한 초창 이래 묘갈이 없던 것을 이번 에 그 16대 본손 법학박사 영국 흥공 호주 뉴질랜드 4국변호사 권혁준權赫俊씨가 자담헌성으로 수비하였다. 역시 흥공과 호주에 현주하는 권혁준씨는 권원식씨의 친자이다. 이날 행사에는 결성공 묘소에 권원식씨가 작헌하고 방손 권오상權五常씨가 고유문을 봉독하였다. 호군공 묘소에는 권혁준씨가 작헌, 권오상씨가 독축하였다.

사진·글 권기원

## 행주서원 춘향제 봉행

행주서원(원장 권정택) 춘향제가 4월 23일 10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행주서원(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71호)에서 권오신 추밀공파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일 추밀공파 석주공 종중 회장, 권행안 안동권씨 대종회 편집국장, 권이혁 안동권씨 추밀공파 정헌공파 동창위원장, 권성욱 양주시민추구단 단장, 김광주 총장사 제전위원장, 우에다 도시오, 이시타 이케미, 권율부대 제60사단 김병길 주임원사, 정로승 고양학연구소장, 선운영 행주서원 전 원장, 이성중 고양향교 사무국장, 정복인 황해영 문화관광해설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날 초헌관에는 김용규 고양특례시문화원장, 아헌관 고부미 고양특례시의원, 종헌관 권이혁 안동권씨 문중 대표, 종헌관 선호승 보성선씨 문중 대표, 이남무 전주이씨 문중 대표, 정중휘 압해정씨 문중 대표, 박영경 뇌육당대선사고양문화, 풍양조씨 문



중 대표, 황주번씨 문중 대표, 대축은 이종구 총장사 제전위원장, 집례 정대재 용강서원 원장, 해설 권은경 예경강사 등으로 분방하였다. 그런데 종헌관이 7명이다. 이는 행주대첩 때 권율장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왜군을 물리친 휘하 장수 여섯 분을 권율장군과 함께 배향하고 있어서 여섯 분에게도 각각 종헌관을 분방하여 헌작하게 하기 때문에 행주서원 향사는 조금 특별하다 하겠다.

권정택 원장은 날씨가 무더운데 수고하였고 각계

각층에서 오셔서 너무 고맙다. 행주서원은 행주대첩 승전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사액 사당이다. 수백년 모시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란다 하겠다.

김용규 고양특례시문화원장은 안동권씨 문중에서 멀리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봄 가을로 향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찾아 주셔서 고맙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71호인 행주서원의 주변이 어지러워 정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잘 정비해서 권율장군의 행적을 기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부미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분과위원장은 지난번에 배정된 예산 10억을 받았다. 또다시 예산 세워보도록 노력하겠다. 행주서원을 지키는 이 제례가 무형문화재로서 후세대에 20대 30대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장 대종회 회장과 권오신 추밀공파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일 추밀공파 석주공 종중 회장, 원당 농업협동조합장, 김용규 고양문화원장, 이남무 고양유림봉사사업위원장, 지도농업협동조합에서는 화환을 보내 행주서원 춘향제를 경축했다.

권행안 편집국장

망배와 제례 식순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 후 음복례를 끝으로 산신제를 모두 마쳤다. 회원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 숲놀이를 하며 상품도 증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산 후 속초코다리집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회장의 건배 제의로 화기에애하게 담소를 나누었다.

다기오는 4월 5일 시조소 춘향제와 5월 4일 안동에서 개최되는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에는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회장이 제공하는 양말 1켤레씩을 받았다. 다음 산행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후 4시경 아쉬운 마음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권영복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 서울산악회 시산제

만물이 소생하는 춘분을 3일 앞둔 3월 17일 오전 11시 회원 30여 명이 자라한 가운데 관악산 끝자락에서 서울산악회 갑진년 시산제를 봉행하였다. 일행은 오전 10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8번 출구에서 만나 인사 겸 정담을 나누며 산에 올랐다. 임원들이 먼저 올라 자리를 잡고 현수막을 걸고 산신의 예우에 맞게 제물 상차림을 해놓았다.

권순휘 총무는 부인과 함께 충북 진천군 관혜원에서 전날 차를 운전하여 올라와서 여성 회원들과



상차림 준비를 하였다. 산신제는 회원 30여명이 자라한 가운데 권오신 산악대장 사회로 시조에 대한